

따뜻한 장흥군, 동계 전지훈련지 인기

전국 축구스토틀리그(초등부) 20개팀 유치 육상·사이클 등 총 40팀 1천여명 '구슬땀' 숙박업·요식업·마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장흥군이 최적의 기후 조건으로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올해 초부터 동계 전지훈련 팀으로 전국 축구스토틀리그(초등부) 20개팀을 유치했다. 지난달에는 당진 기지초교, 공양 중앙초교, 공주 신관초교 씨름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았다. 이 밖에도 육상, 사이클, 럭비 등 총 40팀 1천여명의 선수단이 장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동계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달에도 진도초교 축구팀이 장흥초교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하며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다. 선수단이 유치되면서 숙박업, 요식업, 마트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음식, 숙박 시설에 친절할 손님맞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 시설 사용료 면제, 훈련 참가팀 관내 관광지 무료 관람 등 다양한 인



센터브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동계훈련 팀이 장흥에 머무르는 동안 따뜻한 날씨와 쾌적한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며, "다양한 종목의 훈련팀을 초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흥=김흥필 기자



“명품 춘란” 보러 진도군으로 오세요”

제18회 진도 난우회 춘란 전시회...내달 10일부터 이틀간

진도군에서 춘란 전시회가 18회째 개최된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도 향토문화회관 기획전시실(2층)에서 제18회 진도 난우회 춘란 전시회가 열린다. 회원 28명으로 구성된 진도 난우회 회원들이 춘란(春蘭)의 빼어난 자태와 향기를 공유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춘란은 우리나라 산하에 자생하는 토종 식물로 봄이 왔음을 알린다는 뜻에서 보춘화(報春花)라고도 하며, 가뭄이 자태속에서도 강인함과 고고함을 간직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번 행사에 200점의 우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회 기간 동안 전국의 애란인이 찾아와 난꽃의 향기와 함께 봄의 기운을 만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고유의 품종인 한국춘란을 이해하고 난초의 아름다움과 희귀성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난우회는 우수 품종의 발굴 배양과 함께 매년 난 전시회를 개최하고 산림 복원을 위해 꾸준히 참여하는 등 난 문화의 대중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 국민권익위원회 시민 고충민원 처리 평가 전국 1위

243개 지자체 평가 100점 만점 100점을 받았다. 전국 시 단위 평균이 74.7점인 것에 비교해 여수시는 25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의 경우 '현문현답 쿨기동반'을 운영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위원회·SNS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문현답 쿨기동반'은 민원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의미로 민원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출범한 후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지향해온 '시민옴부즈만'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시, '건강韓 한의약 이동진료' 26곳으로 확대

여수시가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올해 더욱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건강韓 한의약 이동진료' 대상이 지난해 18곳에서 올해 26곳으로 확대된다. '건강韓 한의약 이동진료'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한방 진료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침·한약제제 처방뿐 아니라 건강 상담,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검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올해는 구강진료차량도 동행해 시린이·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 치매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시 “좋은 아버지 되는 법 배워요”

아버지 자조모임 참여자 15명 오는 28일까지 신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아버지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아버지 자조모임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친목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회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부모교육을 포함해 자녀와 함께 체험활동, 전시회 관람, 봉사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3~10세 자녀를 둔 아버지 15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버지는 21일부터 28일까지 센터(061-659-4170)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버지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만큼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조모임 활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공공연대노조 상생 화합 다짐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 참석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완도군과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상일)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공무원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완도군 지부에는 173명이 가입되어 있다. 군에서는 지난해 1월 10일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확정공고를 마친 후 총 6회에 걸친 실무교섭과 보고섭을 통해 지난해 12월 18일 노사가 상생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이 향상된 최종 협약안에 합의를 마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임, 난임 등의 치료를 위한 휴직 요건 신설과 공무원직 국외연수 기회보장 장기재직 휴가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군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단체협약에서 명하였다. 완도=김광수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